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1월

선교편지 제 51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2013년도에도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어느 나라에 태어 나는 것이 좋은가? (The Where-to-be born index)'라는 자료에 의하면, 새해 2013년은 1. 스위스, 2. 호주, 3. 노르웨이등과 같은 나라에 후손들이 태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미국은 16위, 한국은 19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63위로 상대적으로 후손들에게 별로 희망을 주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복지, 교육등과 같은 외적인 요소들만을 비교하여 산출한 순위이지만,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삶의 순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자연 재해로 인하여 민다나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순위를 더욱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25개의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 간다고 하는데, 12월 중에만 기록적인 태풍 2개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위세가 강력했는지, 산 사태, 강 범람등으로 인하여 집과 농토는 물론이고 삶과 밀접한 전기 및 물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도 힘없이 쓸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전기는 빠른 속도로 복구되어 가고 있는데, 상수도 관련 시설은 완전히 복구를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물통을 들고 이곳, 저곳을 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한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용기를 마당에 늘어 놓고, 하늘을 쳐다보며 선교지의 삶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집이 있는 지역은 최근에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물을 공급해 주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많은 어려움이 해결되어 지금은 불편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기 위하여 총동원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불편은 불평할 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로만 약 1,600명이 사망을 하였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 또는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저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가족과 친인척들도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친인척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마디 교회의 교인들의 가족과 친인척들도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위로도 이들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더한 것 같았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

이러한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막연히 들떠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감사하며, 생명이 연장되어 이 날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된 성도들이 더욱 더 귀하게 느껴지는 성탄절로 다가 왔습니다. 모두들 피해자들인 것 같은데, 모두들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태풍의 피해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또한 받기에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한 자녀임을 확인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모아서 깨끗이 보관 해 두었던 옷들을 모든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매년 이맘때에 연례 행사처럼 실시했던 가정별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사진기는 커녕 아직까지 변변한 사진 한장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매년 사진을 찍어 인화해서 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고통 중에 그 어느때 보다 한 가족임이 더욱 더 감사하고, 실감이 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배 후, 교인들에게 옷을 나누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이 세상에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과 늦게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는 나라에 있는 초라한 교회이지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한 몸 됨을 실천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행 2:44)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서 민다나오에 정착을 한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 했을때 저희를 제일 먼저 반겨 주는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앞 길이 막막했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과 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생했던 기억도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소음과 냄새로 인한 고통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교통, 언어, 문화, 규칙,....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래 몸에 베어있던 그동안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먼 옛 일처럼 되어 버리고, 이제는 매일 새롭게 만나는 불편함이 도리어 당연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니, 그렇게도 '불편'했던 일들이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개인적으로는 '유익'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 민다나오에 있는 저희 위클리프 선교 캠프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팀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사명과 열정으로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무엇보다 '건강'에 관해서 만큼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날씨, 물, 음식, 공중 위생으로부터 심지어 모기, 파리등 자신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것들과 매일 같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다양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밤 새 안녕 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더불어서 현지의 진료 시설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병으로 확대되어 대도시 또는 본국으로 치료차 떠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아파서 실려 나가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 부임을 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은 주변 열악한 환경은 제가 어찌 할 수 없지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만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처럼 쾌적한 환경 가운데 좋은 운동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중 위생부터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것들을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자동차와 사무실에는 '알콜'을 항상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손을 씻습니다. 양치질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간혹 간식이라도 먹게 되어도 치실까지 동원하여 양치질을 해야 제대로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난을 떨어도, 주변 현지인들에게는 실례가 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운동은 더욱 더 철저합니다. 매일 적어도 한 시간 이상 땀을 비처럼 쏟으며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 몸으로 하는 운동뿐입니다. 스트레칭으로부터 시작해서, 팔 굽혀 펴기, 윗 몸 일으키기, 달리기,... 정말 살아 남기 위하여 몸 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특별히 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이곳의 먹거리의 도움으로 체중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일에 끝까지 힘있게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수 14:11)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또 다른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들을 구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서점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이곳의 책들은 저희의 갈증을 채워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읽었던 책을 또 보기도 하고, 저작권이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개방이 된 고전을 찾아 읽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다가 지적으로 영영 고사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에 사로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제 손에 있는 '성경'과 더 가까와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읽고, 시대를 따라 읽고, 예수님과 바울과 같이 인물을 따라 읽고, 선교와 종말과 같이 주제를 따라 읽고, 정독을 하고, 속독을 하고, 눈으로 읽고, 소리 내서 읽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딤후 4:8)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때 제 때 하지 않고, 뒤 늦게 더 힘겹게 쫓아 간다고 하는데, 제가 꼭 그 모양입니다. 그러나 뒤 늦게라도 깨닫고 쫓아 갈 수 있어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의 '불편'함이 제게는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통해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지방 언어이다 보니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나,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서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표시하는 방법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동일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한 것과 제 아내가 공부한 것이 일치하지 않아 서로 수정을 해가며 어렵게 언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곳 민다나오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언어 습득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어 공부는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오랜 수소문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닌 '카톨릭' 선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현지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80%가 넘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의 카톨릭 신부, 수녀 선교사들이 이곳 민다나오 깊숙히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카톨릭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현지어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신부, 수녀 선교사들을 교육하는 현지어 프로그램에 제 아내가 먼저 언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수녀 선교사가 아닌 유일한 기독교 선교사로서 타국에서 온 신부와 수녀들과 함께 지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하는 쉽지 않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아내가 현지 언어에 대하여 점점 더 자신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못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사 66:18)

기도 요청

- 디고스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 토요 프로그램과 대학생 선교를 위하여
- 언어 훈련을 위하여
-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